무엇을 통하여 원통을 얻었는가?

〈圓通〉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㉘ 원통(圓通)

〈원문〉 그때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의 대보살들과 그리고 번뇌가 다한 대아라한들에게 고하셨다.

"그대들 보살과 그리고 아라한들이 내 법 가운데 태어나서 무학을 이루었으니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묻노니 최초에 발심하여 십팔계(十八界)를 깨달았으니 어느 것이 원통((圓通)이었으며, 무슨 방편으로부터 삼마지(三摩地)에 들었는가?"

교진나와 다섯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을 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제가 녹원과 계원에 있을 적에 여래께서 최초로 성도(成道)하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 음성에서 사제(四諦)를 깨달아 밝혔사오며, 부처님이 비구에게 물으매 제가 처음으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래께서 저를 인가하사 아야다(阿若多)라 하셨는데 미묘한 음성이 은밀하고 원만하여, 저는 음성에서 아라한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음성이 으뜸이 되겠습니다."

〈강설〉 〈능엄경〉 5권 마지막 부분과 6권에 걸쳐 나오는 대용을 25원통장(二十五圓通章)이라 한다. 부처님이 보살들과 아라한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원통을 얻었으며 삼마지에 들었느냐고 묻자 차례로 자기가 얻는 원통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다. 맨 먼저 교진나와 5비구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다. 이들은 녹원과 계원에 있을 적에 부처님의 최초 성도를 보고 사성제(四聖諦)를 설할 때 부처님 음성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사뢴다. 녹원은 초전법륜지로 알려진 녹야원(鹿野園)이고 계원은 마가다국에 있었던 계원정사(鷄園精舍)를 말한다. 음성은 성진(聲塵)인데 육진 가운데 먼저인 색진(色塵)이 아닌 성진을 먼저 말하는 것은 25원통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을 가장 수승한 것으로 나중에 추천하므로 이근(耳根)과 상대되는 성진(聲塵)을 먼저 말했다고 보기도 한다. 25원통은 육근(六根), 육진(六塵), 육식(六識)을 합한 십팔계(十八界)에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견(見), 식(識)의 칠대(七大)를 합한 수치다.

교진나가 사제법문을 듣고 부처님으로부터 아야다란 이름을 얻고 깨달음을 인가받았다는 것은 묘음이 밀원(密圓)한 것을 듣고 성진(聲塵)을 통하여 본성인 여래장묘진여성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성품 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설법을 하고 그 설법을 듣는 것이 모두 진여의 성(性)에서 나오고 또 그 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십팔계 가운데서 성진(聲塵)이 가장 원통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원통이란 원통무애(圓通無礙), 원통자재(圓通自在)를 줄인 말로 깨달음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깨달음 자체 성품이 일체에 두루 미치지 않는 데가 없기 때문에 원(圓)이라 하고 묘용(妙用)이 자재하여 장애가 없기 때문에 통(通)이라 한다. 이는 또한 지혜에 의해 진여의 성품을 깨닫는 실천 수행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럴 때는 원통을 닦는다고 말한다. 25원통 중에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이 제일이라 하여 으뜸으로 치며 또 관세음보살을 원통교주라 하고 때로는 원통대사라 부르기도 한다. 또 원통은 육근의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근의 작용을 겸하여 일체에 두루 미치는 원융한 과보를 말하기도 한다. 일체중생이 모두 갖추고 있는 마음의 근원이며, 불보살이 증득한 성인의 경계가 모두 원통이다. 〈능엄경〉 6권에는 문수보살이 읊는 게송이 나오는데 이를 원통게(圓通偈)라고 부른다. "소리가 있다고 생기는 것고 아니고/ 소리가 없다고 사라지지도 않네/ 이것이 변함없는 진실이라네/ 듣는 성품은 생멸이 없는 것/(聲有亦非生 聲無亦非滅 此則常眞實聞性不生滅)"

이는 성진이 있건 없건 듣는 문성(聞性)은 항상 그대로라는 말이다. 라후라에게 종을 치게 하고 듣느냐 못 듣느냐 아난에게 물었을 때의 이야기와 같은 뜻이다. 이 '생멸이 없는 성품'을 두고 '생사를 따르지 않는 한 물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생겨나도 본래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본래 사라진 바가 없다(生本無生 滅本無滅)하여 영가(靈駕) 법문에도 이 말을 설해 주기도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진여식 주체로 한 '진여수행 보시바라밀'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㉘ 생멸문의 보시바라밀

가슴바탕에서 편안한 마음을 인식한 다음, 3지 첫째 마디를 억제하고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시상까지 들이쉰다. 중간기둥 'ㅇ' 발성으로 중황과 황정을 전체적으로 울려주고 중황자리에서 텅 빈 감각을 인식한다. 나선 호흡으로 세워진 무념주의 기둥과 발성으로 형성된 텅 빈 감각을 함께 주시한다. 가슴바탕에 세워진 편안한 마음이 선나가 된다. 손가락의 굴곡 각도와 호흡, 발성으로 각각의 뇌신경핵과 척수분절에서 막을 세워준다. 머리에서 천수 말단까지 43개의 서로 다른 막이 세워진다. 각각의 막에 머물러서 사마타와 선나, 간극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제도된다.

선나와 사마타의 간극을 활용해서 안팎의 경계를 비춰본다. 이것이 생각으로 행하는 보시바라밀이다. 눈, 귀, 코, 입, 몸, 생각을 이와 같이 관찰하고 그렇게 활용한다. 이것이 간극에 머물러서 안, 이, 비, 설, 신, 의로 보시하는 것이다. 진여 수행의 보시바라밀은 진여식을 주체로 해서 행해진다. 진여식은 9식이다. 9식의 체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해탈지견이다. 둘째는 암마라식이다. 셋째는 원통식이다. 해탈지견은 의식 · 감정 · 의지가 떨어져 나간 뒤에 갖추게 되는 진여식이다. 각성의 상태와 수행절차에 따라 두 단계의 해탈지견이 갖추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본각과 아라한도의 과정에서 갖추어지는 해탈지견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구경각과 보살도 과정에서 갖추어지는 해탈지견이다. 아라한도의 과정에서 갖추어지는 해탈지견은 본각이 주체가 돼서 밝은성품을 비춰보는 상태이다. 아라한이 진여출가를 하려고 하면 본각을 구경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본성과 각성을 서로 분리시켜야 한다. 본성과 각성을 분리시킨 다음 밝은성품의 기쁨에 각성을 집중하게 되면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이 상태가 보살도 초지 환희지의 상태이다. 보살도 과정에서는 2지 이구지까지 해탈지견이 쓰인다. 암마라식은 분리시켰던 생멸심을 제도하면서 갖추어진다. 제도된 생멸심이 불공여래장으로 전환되면서 갖추어지는 진여식이다. 3지 발광지, 4지 염혜지, 5지 난승지, 6지 현전지에서는 자기 생멸심을 제도하면서 암마라식이 갖추어지고 7지 원행지와 8지 부동지에서는 반연 중생들의 생멸심을 제도하면서 암마라식이 갖추어진다.

원통식은 6근원통을 통해서 갖추어진 진여식이다. 9지 선해지에서 갖추어진다. 원통식은 자기 진여식에 내재되어 있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고 생멸식의 바탕을 제도해서 6근 청정을 이룬 것이다. 10지 법운지에 들어가서 대자비문을 완성하게 되면 등각도에 들어가게 된다. 진여수행에서 행해지는 보시바라밀은 9식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식 상태와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진여식은 완성된 식이 아니다. 진여식은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내재하고 있고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과 생멸심의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 진여심을 제도하고 등각도로 나아가기 위해 진여수행의 6바라밀을 행한다. 보살이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대상은 해탈도의 과정에서 분리시켜 놓았던 자기생멸심이다. 두 번째 대상은 자기 생멸심에게 생멸 정보를 주었던 모든 존재들이다. 원초신에서 분리된 이후에 육입(六入)과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사(死)를 거치면서 인연되었던 모든 생명들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세 번째 대상은 생멸문을 이루고 있는 원초신이다. 초지에서부터 현전지까지는 자기 심식의를 이루었던 대상에게 보시를 행한다. 해탈지견과 암마라식이 쓰인다. 원행지와 부동지, 선혜지까지는 자기에게 생멸정보를 주었던 반연 중생들에게 보시를 행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㉘ 무상정등정각

증명하면 얻을 것이 없다

산스크리트어 '아눗따라 삼먁 삼보디(anuttara-samyak-sambodhi)'의 한자말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으로서 '이보다 더 위가 없는 최고로 바르고 원만한 부처의 마음 또는 그 지혜'를 뜻한다.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 많이 독송하였던 익숙한 언어들이다. 아마 대부분의 경에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번역일 것이다. 아마 풀이해 놓은 것을 보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번역된 언어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실만을 전달할 수 있지 그 깊이는 전달할 수가 없다.

음식의 맛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치찌개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김치찌개 맛을 설명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려 해도, 그 외국인이 김치찌개 맛을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맛을 경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사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뜻으로는 서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풀이에 표현하지 못하는 뉘앙스는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 뉘앙스이다. 이 뉘앙스는 그 외국인이 알아내야 하는 몫일 것이다. 이 뉘앙스는 일반인이 느끼는 맛의 취향이 아니다. 정확한 맛을 알려면 유능한 요리사가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맛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능한 요리사는 취향이 없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음식에 취향이 있어 그 뉘앙스를 모두 알기는 어렵다.

유능한 요리사는 음식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맛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던 재료의 조화를 만들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맛을 살려낸다. 만약 유능한 요리사가 설명해주는 조리법을 듣게 되면 어떤 맛을 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 음식 요리사가 끓인 김치찌개 맛을 한 번 보는 것이다. 김치찌개는 김치의 발효된 정도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다. 요리사라면 한 번 맛을 보면 발효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겠지만, 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발효된 맛을 알기 어렵다. 같은 김치찌개라도 처음 만든 김치와 발효된 김치의 맛은 완전히 다르다. '바르고 원만한' 이라는 단어도 사전적인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숙성시킨 발효된 뜻을 알아야 한다.

"제법에는 자상이 없는 것도 아니요 자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아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그들이 망상을 품는 것이네. 마찬가지로 소위 일체법이 본래 공이요 생겨나지도 않으며 자성도 없는 이치 역시 이 관점으로 알 수 있네."

문 앞에서는 누구나 아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문을 열고나면 아는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앎이 아니며 증득(證得)한 것이 아니다. 앎은 증명하여 얻는다는 의미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본뜻은 증명하면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 두 글자의 조합은 오묘하다. 증명하게 되면 얻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 얻을 것이 없음을 얻었지만 얻은 것은 아니니, 이것을 증득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동등하여 더 이상 세울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등하다고 하면 대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

대상에 대한 동등함이 아니라, 거짓으로 놓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거짓된 조건들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나타나지 않은 것도 아니니, 같다는 조건도 아니고 다르다는 조건도 아니다. 다만 그것이 거짓된 조건이라는 것이 동등한 것이다. 거짓된 곳에서는 많고 적음도, 옳고 그름도, 길고 짧음도, 행복과 불행도 사실이 없는 이미지의 관점일 뿐이다. 그런 관점을 가진 오온을 나라고 하고, 나의 것이라 하고, 나의 존재라 한다면, 바로 앞에 사실을 두고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가설이므로 많이 배운다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라는 한 문장밖에 없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